



준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ews.com



‘때’를 알아야 참사람

못 생명을 숨을 쉰다. <장자> 대종사편에 ‘진인은 발뒤꿈치로 숨을 쉬고, 범부는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眞人之息以踵 衆人之息以喉)’고 했다. ‘발뒤꿈치로 숨을 쉰다’ 함은 참사람(眞人, 부처)이 한 호흡마다 발뒤꿈치까지 온몸의 구석구석에 고루 퍼지는 것을 ‘자각(自覺)’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참사람이나 범부나 한숨 들이켰을 때 허파와리가 부풀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다. 들숨과 날숨 모양새는 똑같다. 범부는 관심이 남과 밖으로 쏠린 탓에 자신의 호흡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있어도 목구멍에 이따금 차고 더운 공기가 오고감만을 느낄 뿐이다. 숨이 들고 나는 ‘때’를 모른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깨어 숨이 들고 나는 ‘때’를 바로 아는 참사람은 일상의 모든 것에도 깨어있다. ‘일미진중합시방(一塵中舍十方)’이라 했다. 하나의 깨진 도리는 만법을 꿰뚫기에 자신이 물러날 때도 알기 마련이다.

2007년 10월, 신정자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어진 뒤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때 까지도 거취를 미룬 스님은 3월 13일 ‘종도

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사장직 사퇴 불가의 뜻을 발표했다.

사퇴불가 사유에 대해 영배 스님은 “학교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발목 잡는 세력들로 인해, 동국대가 종단의 이해다름에 다시 휩쓸릴 지경이 됐다”는 으뜸장도 있었다. 영배 스님의 이 같은 태도에 혹자는 “부적절하게 나왔던 받은 죄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사안이 못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지난해 약속했던 3월말 사퇴를 번복했다. 스님은 3월 31일 태고종 중앙총회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기회를 달라”며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스님도 “3월말 사퇴”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만으로는 종단에 누를 끼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 스님 모두 수행자보다는 학교와 종단을 위해 희생한다는 ‘순교자’의 길을 택했다. 두 스님이 공인으로서 식언과 허언은 했을지언정 ‘때’를 모르는 절부지일리는 없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 말한 ‘때’를 반복하며 자리를 지킨 두 스님의 진의는 그 ‘때’가 되면 알 수 있을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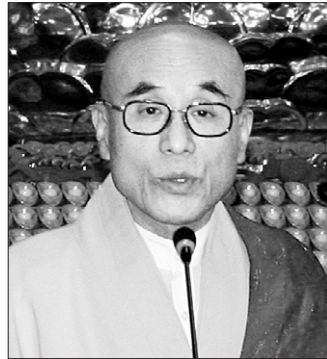
“종단 혼란 결자해지가 도리”

운산 스님 사퇴 철회... 종회 ‘지지’·보우승가회 ‘조사’

3월 말 사퇴 의사를 밝혔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잔여입기(11월 9일)를 재우게 됐다.

태고종은 3월 3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97회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의원 52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운산 스님은 “태고종이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과 개인적으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종도에게 참회 드린다”며 “지나해 종단 안정을 위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최근 더욱 혼란스러워진 종단의 현실을 보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것이 총무원장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4월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운산 스님은 “종권에 연연해 철회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떳떳지 못한 상황에 부끄럽고 착잡함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 표명 후에도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책임



운산 스님이 3월 31일 진행된 임시중앙총회에서 사퇴의사 철회 발언을 하고 있다.

지고 종단 화합과 현안타결을 이루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운동 상황 등을 봤을 때 현재 종단 내 산재한 문제들과 의혹들을 정리하는 데에 다른 분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중앙총회 전 상의를 통해 종회의원 35명과 총무원장 20명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

했다. 운산 스님은 7일 오후 총무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인사개편 등 (종단 쇄신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산 스님의 사퇴 철회와 관련해 총회의원들은 임시중앙총회에서 “잔여입기 동안 책임감 있는 자세로 총무행정에 만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철회 의사를 지지했다.

하지만 보우승가회(회장 도산)는 이번 중앙총회의 결정과 관련,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고종 내 건전 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운산 스님 퇴진 운동과 의혹조사 등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운산 스님은 2008년 10월 1일 ‘늦어도 2009년 3월 30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사의 마무리와 조계종과의 신촌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나겠으며, 그 전이라도 두 현안이 해결되면 즉시 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어린이 포교 네트워크 강화”

조계종 포교원 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3월 28~29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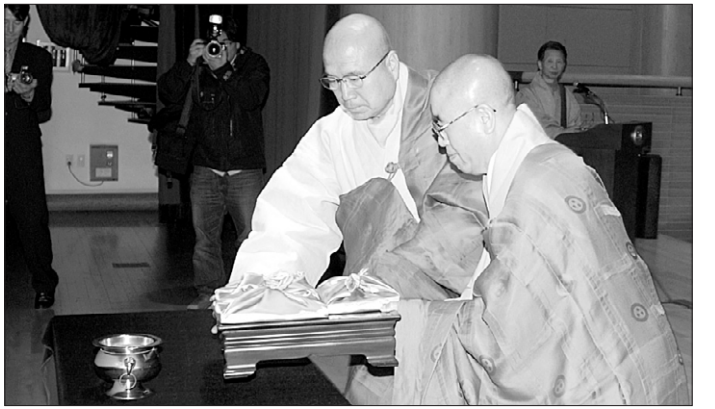
이번 연수에 참가한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 합격자 24명을 포함한 80여 전국 지도자들은 지역별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어린이 법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지도자들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연합운동회, 이웃 사찰과의 교환법회, 학부모 초청강좌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정기 모임 실시 공개수업 참관, 지도자 간 네트워크 강

화를 위한 ‘키즈붐다’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참가 어린이지도자들은 한국멘토링코칭센터 홍재우 강사의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는 멘토링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포교는 상대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 달렸으니 네트워크를 구축해 힘을 모아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달라”며 “어린이 포교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귀하게 여겨 한 명 한 명 진성 불자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그리운 석주 큰스님’ 봉정법회 석주당정일대종사문도회(대표 월호)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그리운 석주 큰스님>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김진성 기자

“종책도 중요하지만 해외구호도 중요”

종책모임 화엄회, 로터스월드·지구촌공생회 등과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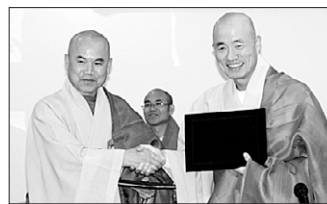
조계종의 한 종책모임이 교계 해외구호단체들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복지사업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화엄회(회장 도공)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로터스월드(대표 성관)와 BWC공공운영 및 병원운영시설 건립 추진 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전달했다.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는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씨엘립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진료시설이다.

화엄회장 도공 스님은 “화엄회는 12년 전 화엄회 결성 당시에는 물론이고 최근에도 전사회 등을 열어 해외 복지를 위한 성금을 마련해 왔다”며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3월 30일 화엄회장 도공 스님(왼쪽)과 로터스월드 대표 성관 스님이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로터스월드 등과 공동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터스월드 성관 스님은 “화엄회 참여를 계기로 로터스월드와 조계종 중진스님들을 비롯한 명실공히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하는 해외구호단체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화엄회는 이날 협약체결과 함께 전달한 3억원에 이어 10년 동안 매년 미화 3만 달러씩을 BWC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화엄회 회원스님 3

인이 로터스월드 이사로 참여하며, 화엄회 5인과 로터스월드 5인으로 구성된 BWC운영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화엄회가 지원한 3억원은 BWC 아동센터의 시설과 안과수술 환자 입원시설 개비와 어린이 기숙사 리모델링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와 ‘미안마 화엄초등학교’ 건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기탁금 2억원을 기부했다.

화엄초등학교는 미안마 양근의 빈민지역인 쉐피타 타운에 1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된다. 쉐피타 타운 지역은 2008년 5월 사이클론 피해로 미안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왔다.

조동섭 기자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선출

4월 2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 주지에 종삼 스님(법주지·사진)이 선출됐다.

스님은 4월 2일 열린 화엄사 산중총회에서 147명 선거인단 중 106명이 투표한 선거에서 85표를 받았다. 경선에 나섰던 종두 스님은 16표를

얻었고, 5표는 무효 처리됐다.

한편, 종삼 스님의 입기는 2013년 5월까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중앙총회의원 당선확정 공고

2008년 8월 25일자로 “서울고등법원 2007라 1580호 임시종정선임” 결정과 그 절차에 따라 임시종정 김윤철(향운)스님의 중앙총회의원 선출 공고에 의하여 종회법 제 11조 제 12조에 규정에 의거 중앙총회의원 당선확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 | | | | | | |
|---------|---------|---------|---------|---------|---------|
| 김수호(성은) | 최병택(지호) | 박병철(진산) | 설희생(명관) | 손동주(도봉) | 김옥자(옥운) |
| 김위곤(도명) | 안영자(운영) | 이청일(인담) | 김종술(상경) | 장영국(혜봉) | 이성식(운학) |
| 이동립(원봉) | 이순서(원각) | 이동수(성원) | 장덕수(해인) | 신찬호(운오) | 이경락(영산) |
| 박정명(지상) | 신현호(천수) | 최광식(진혁) | 박종수(지원) | 정성채(정안) | 신태호(선인) |
- 이상 24명 (무순)

불기2553(2009)년 4월 3일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총회선거관리위원장 이병근(도천)

임원공고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자운 청봉 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혜오

원로원장 덕신 운암

원로위원 대연 구담

비구니원로위원 지성

총무원장 월산 혜봉

중앙연수원장 법전

교육원장 지오

교육부원장 원오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부원장 정혜

감찰부장 운오

재무부장 법련

문화부장 운산

경남총무원장 석봉

경북총무원장 묘원

울산총무원장 능현

부산총무원장 도경

경기총무원장 호산

전북총무원장 도암

종도일동

■총무원 : 연봉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 해봉사님 직통 011-545-5060